

민주, 추경호 영장 기각에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

“내란청산 방해·尹과 한동훈… 내란전담재판부 필요 이유 증명”

법원행정처 폐지·법관징계 강화 법안 발의 사법개혁 입법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3일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반발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 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내란 저지 1년을 맞아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도 끝까지 완수하겠다”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다시는 어떤 권력도 헌정을 유린할 수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를 통해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을 종식하고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촉구했다.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최고위원은 “1년 전 대한민국은 이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고, 불안과 공포에 떨 이유도 없었던 지극히 평화로운 날이었다. 그런 평화를 깬 장본인이 윤석열이었다”면서 “윤석

열 대통령을 만들어 낸 당이 국민의힘이었다”고 강조했다.

또 “적반하장도 유분수,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국민을 무시하는 정당은 결코 존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법원과 법관 견제를 골자로 하는 각종 법안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연루된 내란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검사가 법을 고의로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데스크 포스(TF)는 이날 오후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의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추미에 법제사법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내란 종식을 위해 전담재판부 설치, 내란특별법, 법외조직을 연말까지 처리하겠다”며 “반드시 처리해야 잔존하는 내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9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3일 새벽 추 의원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구속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로 추 의원을 기소할 전망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내란특검의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법원을 향한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최고위원, 당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군 저지에 앞장섰던 시민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진석-김남국 인사청탁 문자 논란…대통령실 “엄중 경고”

국힘 공세 속 민주 “매우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인사 청탁을 하는 장면이 포착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만사현통’ 공세에 나섰고, 대통령실은 김 비서관에게 경고하고 더불어민주당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식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음을 알린다”며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공지에서 해당 직원이 누구인

지 명시하지 않았다.

앞서 문 수석부대표가 전날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같은 대학 출신의 인사를 한국자주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일부 언론 카메라에 잡혔다.

김 비서관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추천해달라는 문 수석부대표의 말에 ‘혼식이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의 이런 대답은 여당 원내지도부 일원으로 부터 받은 인사 청탁을 강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읽혀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두 사람 간의 대화 자체가 부적절했다”며 “특히 대통령실이 관여하는 사안도 아닌데, 거기에 내부 직

원이 사적 대답을 한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도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매우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에 이견은 없다”며 “대통령실의 우려 표명도 그런 수준으로,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고 있는 것은 틀림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이 ‘청와대 상왕’이 드러난 인사청탁이라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 곳곳에서 ‘김현지를 통하면 다 된다’는 ‘만사현지, 현지형 통 공화국’이라는 조롱이 왜 나오는지 적나라하게 입증됐다”며 “왜 그토록 민주당이 김현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온몸으로 막아섰는지 이번 사건이 명확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연합뉴스

광주 마북동 공군 탄약고 이전 내년부터 재개

사업비 50억원 예산안 반영

‘광주시 서구 마북동 공군 탄약고’ 이전 사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사진)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마북동 탄약고 이전 사업비 5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당초 정부 안에는 반영되지 않았거나 미미했던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5억원이나 증액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마북동 탄약고는 지난 1975년 설치된 이후 50년 가까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안전사고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2005년 이전 사업을 승인하고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토지 보상 등을 진행했으나, 2023년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맞물리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사실상 담보 상태에 빠진 사업의 물꼬를 튼 것은 양 의원의 ‘분리 대응’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조속한 이전을 요청하는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

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도심 한복판에 있는 탄약고의 위험성을 간절하게 설득했다”면서 “특히 예산 심의 막판까지 한병도 예정위원장 등과 긴밀히 공조해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며 삭감됐던 관련 예산을 되살려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범접 섰던 탄약고 이전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은 150만 광주 시민의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내년 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남은 공사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하루빨리 시민의 품으로 부지를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민주 지방의원 동원령…지방의회 일정 차질”

혁신당 광주시당 “서울집회 동원”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주년 서울 집회에 지방의원을 총동원하면서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조국혁신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비상계엄 1주년 행사 참석을 이유로 광주·전남 기초의원들에게 ‘필수 참석’ 지침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의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

사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일정이 축소되거나 뒤로 밀리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 의회 등은 이날 내년도 본예산 심의 등 일정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상경하면서 오후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안건을 줄속으로 처리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혁신당은 설명했다.

혁신당 시당은 “다수당의 지위는 중앙당 행사의 동원력을 극대화하라는 위임이 아니다”며 “지방

의회가 지역사회 의제를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거대 양당의 독점적인 ‘복수공천’ 구조를 지목했다.

서왕진 위원장은 “민주당의 강제 동원령이 통하는 것은 공천 경쟁이 지방의원 전체를 정당 행사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정치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회복하고 중앙 정치의 하부 조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현행 기초의원 복수공천제를 폐지하고 단수공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

zgm, 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기주비(속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복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 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타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